

01 교회소식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했던 추수감사주일과 아프리카 모잠비크 선교 및 GCN방송 코이콤 총회 참석 등 국내외 소식.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 주고 바른길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상대의 허물을 덮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03 선교

“온 가족이 권능을 체험했어요!”

힌두교 가정에서 시집 가 꾀박받던 여인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통해 가족 복음화를 이루고 가정교회까지 이루게 되었다.

04 간증

나를 만나 주신 분~

자신의 B형 간염과 어머니의 간경화를 치료받은 김동규 집사, 류머티즘성 관절염에서 해방된 콩고민주공화국 골로 브릿지 성도 간증.

# 만민뉴스

제909호 2019년 11월 24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한결같은 사랑, 풍성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지난 11월 17일, 우리 교회는 주일 대예배를 추수감사주일 기념 예배로 드리고 저녁예배 시에는 성찬식을 가졌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를 천국의 특등품 알곡으로 들이시고자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흠족히 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올해도 단에는 총 239종의 곡물과 과일, 채소 등으로 풍성히 꾸며졌으며, 여선교회총연합회 주관하에 성도들의 봉사와 찬조로 이뤄졌다. 해와 달, 별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오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인간 경작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 정명호 목사 초청 모잠비크 목회자 및 지도자 세미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줌으로 수많은 환자가 치료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4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목회자와 지도자들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믿음의 분량’(롬 12:3)을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하였다. 마포세 총회장과 성도들은 영적으로 깊이 있게 풀어 주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다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경회 총회장 정명호 목사가 아프리카 동남부에 위치한 모잠비크의 수도 마푸토에 소재한 Evangelical Ministry in Action 교회(담임 총회장 마포세 목사)의 초청을 받아 주일예배와 목회자 및 지도

자 세미나를 인도하였다. 지난 11월 3일 주일예배에는 15,000명이 모인 가운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권능 사역이 담긴 ‘권능’ DVD 상영 후 ‘믿음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이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 GCN방송, ‘2019 코이콤 총회’ 참석

지난 11월 7일, GCN방송이 중미 엘살바도르에서 개최된 ‘2019 코이콤 총회’에 참석했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코이콤(COICOM, 스페인어권 기독교 송인협회)은 중남미 선교 활동 및 기독교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기독교 미디어 협회이다.

이날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중남미 22개국을 비롯 한국, 미국 등에서 1천여 명의 기독교 송인과 관련자들이 참석한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그들을 격려했다.

한편 GCN방송 국장 김진홍 장로는 인사말을 전한 뒤, 우리 교회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권능 사역이 담긴 GCN 방송 소개 영상을 상영함으로써 참석자들에게 은혜를 끼쳤다.

GCN방송

부스에서는 콜롬비아만민교회 담임 장정연 목사와 엘살바도르 손소나떼 만민교회 성도들이 이 목사의 신앙서적과 ‘만민뉴스’(스페인어 판) 등을 전시, 소개하며 홍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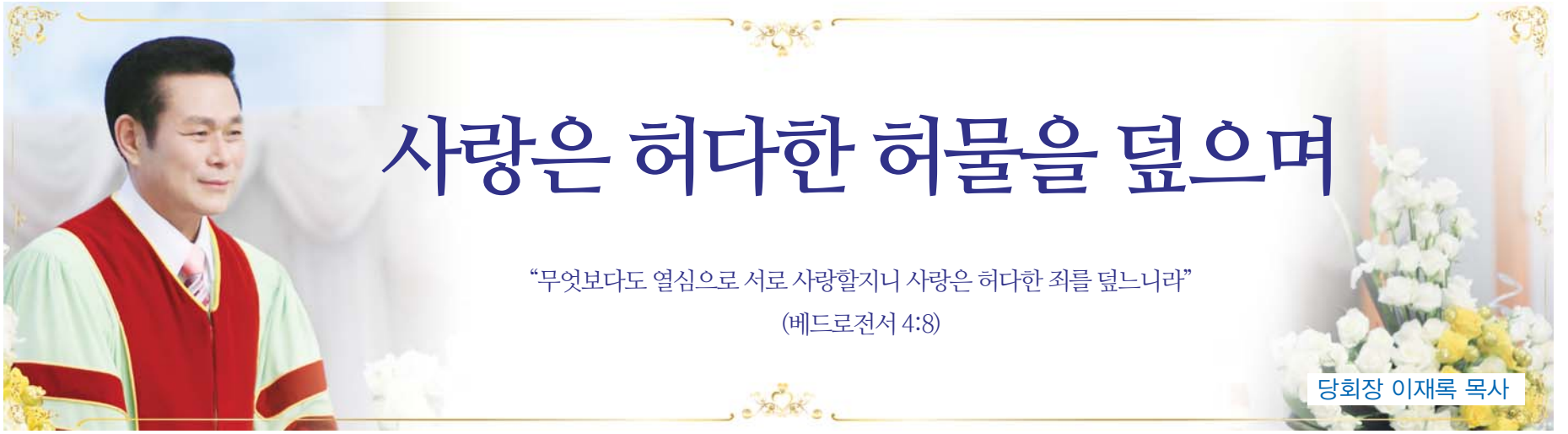
특히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열렸던 온두라스 연합대성회와 페루 연합대성회, 중남미 최대 스페인어 기독교TV 엔라체, JBN 등을 통해 방송되는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사역에 은혜받아 간증하는 사람들로 성황을 이뤘다.

지난 11월 3~6일에는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이스라엘 정부 국정홍보실과 예루살렘 유산부 주최, ‘2019 세계 기독교미디어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

석하였다. 이는 GOD TV, CBN, TBN 등 세계 30개국, 150여 명의 기독교 미디어 대표들이 함께한 자리였다.







#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8)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사랑의 힘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아무 죄 없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음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지요.

예수님처럼 죄인들의 허다한 허물까지도 덮어 줄 수 있는 사랑을 소유한다면 상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다한 허물을 덮어 줄 수 있는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상대의 허물을 덮어 준다'는 말씀의 의미

흔히 '허물'은 그릇된 실수나 잘못을 의미하며, 영적으로는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질이 행함으로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할 마음이 있다고 해서 이를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둑질을 했을 때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물을 덮어 주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지요.

'상대의 허물을 덮어 준다'는 것은 단순히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오래 참음으로 상대가 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며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설령 자신에게는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덮어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허다한 허물을 덮어 줄 수 있는 사랑 역시 오래 참음이 기초가 되어서 상대가 온전해질 것을 바라보고 다가오는 모든 고통을 견디며 참아 주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대의 흠과 티를 드러내거나 없는 허물을 만들어 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덮어 줄까, 그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하며 상대가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을 버리고 상대의 허물까지도 덮어 주는 선한 마음이 되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 2. 허다한 허물을 덮어 주는 사랑을 이루려면

1) 상대의 허물을 보았을 때 가만히 꿀꿀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경상의 인물로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였는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그녀를 돌로 쳐 죽이도록 내놓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꿇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죽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선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음을 천사를 통해 알려 주십니다. 자신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로 선택받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알고 큰 기쁨 중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 상대에게 상황 설명을 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배신감을 느끼며 미워합니다. 그러나 먼저 상대의 입장이 되어 조금만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상대의 허물을 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이리이러한 잘못이 있는데 나는 다 이해할 수 있어”라고 하며, 마치 자신은 다 이해하고 있으며 그 사람을 감싸 주는 너그러운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오히려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골로새서 3장 13~14절에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형제 사이에는 다투어 허물을 드러냄으로 불의한 자가 되느니 차라리 누명을 쓰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당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감사하며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2) 상대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 허물을 덮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허물을 덮어 준다는 말씀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예가 나옵니다.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그 장막 안에서 별거벗은 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둘째 아들 함은 다른 두 형제에게 가서 알리지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해 어깨에 매고 뒷걸음쳐 장막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이켜 하체를 보지 않았지요.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 함은 물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그 허물을 덮어 준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둬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으며, 설령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그것이 자신의 허물인 것처럼 민망히 여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라면 남편이 잘못 되기를 바랄 리 없고 남편의 흠과 티가 보인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지요.

흠과 점과 티도 없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용서를 베풀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으며 영혼들의 아픈 곳을 싸매 주셨습니다. 죄인의 허물을 보면 덮어 주시며 돌이켜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지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상대의 허물을 덮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허물을 덮어 주라 하니 무조건 허물을 덮어 주는 것이 옳을까요? 허물은 곧 죄요, 죄의 샅은 사망(롬 6:23)이므로 상대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덮어 놓고 모른 체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의 허물의 경중에 따라 때로는 사랑의 권면이나 훈계, 책망 등 상대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 바른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약 5:19~20).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구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오소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인]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녀오실아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3) 상대가 진리로 변화되도록 이끌어 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 주고 이해해 주는 차원을 넘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심으로 생명을 낳으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썩어질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받을 수 있게 하는 생명, 영으로 살리는 생명을 말합니다. 어둠에 있는 영혼들에게 찬란한 빛을 비취 주는 생명이지요.

예를 들어, 허물 많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앞으로 될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셨을 때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버리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요 13:33, 36, 37 ; 눅 22:31~33).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요

13:38) 말씀하셨지요. 결국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곧이어 닭이 울고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지요(눅 22:54~62).

그런데 만일 베드로가 여기서 주저앉고 말았다면 권능의 사도로서의 베드로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떠올렸습니다.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던 말씀 등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주셨고, 자신이 주를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당부의 말씀만 해 주신 일들에 대해 떠올렸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는 지난 일들을 생각하며 감당치 못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 또다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속마음 곧 예수님을 부인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더한 죄 가운데 빠져들 수 있었던 상황에서 구해 내신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허다한 허물을 덮어 주는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으로서, 제자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 이러한 사랑으로 이끄셨습니다. 이미 지은 죄를 사해 줌은 물론, 더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 허물을 덮어 주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온가족이 살아 계신 주님을 만나 가정교회까지 이루게 됐어요”

번드나 성도 (30세, 인도 달록푸라)



힌두교 가정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서 제 신앙생활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기독교를 심하게 반대해 몰래 숨어서 기도하고 금식한 지 8년이 지나 감사하게도 남편이 주님을 영접해 함께 교회에 다닐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 교회를 다녀 보아도 제게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가르쳐 주는 목회자, 사랑이 많은 목회자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 『십자가의 도』 이 책의 저자라면 나를 진리로 인도해 줄 거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웃이 『십자가의 도』와 『믿음의 분량』, 『지옥』 책자를 전해준 것입니다. 저는 이 책들을 읽으면서 저자인 이재록 목사님

이야말로 진리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참목자임을 느끼며 감격스러웠습니다. 이후 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간구하였고, 만민교회에도 가보고 싶었지요.

얼마 후 텔리만민교회의 메디컬 팀이 주관하는 치료 간증 세미나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저는 그곳에 갈 수 있다는 사실에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 찬양과 기도를 통해 전에 맛보지 못한 벅찬 감동을 느꼈지요. 더욱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텔리만민교회 담임 김상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에는 뜨거운 눈물이 계속 흘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2015년 8월부터 텔리만민교회에 다니게 된 뒤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부부싸

움이 잦던 저희 가정이 서로를 이해하는 화목한 가정으로 바뀌었고 질병과 상관없는 가정이 되었지요.

저는 수개월 동안 다리가 떨려 밤잠을 설쳤는데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로 치료받았고, 자주 폐렴에 걸려 병원을 전전하던 두 아들도 만민교회에 다닌 뒤로 병원에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둘째아들은 작년에 장티푸스로 한 달 간을 학교에 갈 수 없었는데 권능의 손수건 기도로 깨끗이 치료받았지요.

### 핍박하던 시어머니까지 온 가족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저는 아픈 사람들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 간증과 함께 만민교회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또 ‘예수가 왜 구세주가 되시는지’ 당회장님의 ‘십자가의 도’ 말씀과 환자기도를 통해 치료받은 역사를 전하니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었습니다.

텔리만민교회 담임 김상휘 목사님은 교회에서 차로 한 시간 넘게 걸려 이곳 달록푸라까지 오셔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얼마 후 주일예배를 저희 집에서 드리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20여 명이 함께하는 가정교회를 이

루게 되었지요. 매일 다니엘철야 기도회와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에도 함께하는데 주님께서 새신자를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신기한 간증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 쥐와 개미가 있어서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기도 받으면 없어지는가 싶다가도 다시 생겨서 신경이 쓰이던 차에 온전한 십일조(말 3:8~12)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되었지요. 이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그대로 행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쥐가 완전히 없어지고 바닥이나 침대에 보였던 개미들도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십일조를 드린 후 남편이 하는 일도 잘되어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가게도 내게 되었지요.

허리 디스크와 관절염으로 걷지도 서지도 못하시던 시어머니는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고 걷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주님의 이름을 듣는 것도 싫어하시던 분이데 지금은 변화되어 자신은 만민의 양 떼라고 행복하게 고백하십니다.

저희 가족이 만민교회를 만나 변화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좋은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저는 B형 간염을, 어머니는 간경화를 치료받았습니다!”

김동규 집사 (46세, 중국 1교구)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무릎관절염을 치료받아 건강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 친척 누나(박정자 집사)의 인도로 2012년에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지치고 힘겨운 삶을 살았기에 교회에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B형 간염 보균자였던 저는 늘 몸이 피곤했고, 밥맛이 없고 두통에 시달렸으며, 고질적인 비염으로 인해 코가 막히는 등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요.

그러던 중 누나의 간곡한 권면을 듣고 2013년에 다시 교회에 나갔습니다. 각종 질병을 치료받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중국교구 성도님들의 모습과 섬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당회장님의 설교 말씀에 매주 은혜를 받으며 주일성수를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저에게 있던 각종 병세들이 떠나갔습니다. 코 막힘으로 숨쉬기 힘든 증상, 두통 등 25년간 고생했던 일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B형 간염도 치료받아 정상이 되었지요. 할렐루야!

저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중국교구 성도들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봉사하고 중국교구 찬양팀 멤버로 섬기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감사한 일은 간경화를 앓던 어머니(이수금 집사)가 치료받아 건강하게 생활하시니 정말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어머니는 중국에 계실 때 간경화로 복수까지 차올랐습니다. 의사는 “여기서는 해결하기 어려우니 한국에 가서 치료받고 돌아오세요”라고 할 정도였지요. 저는 하나님께 치료받은 체험이 있기에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 빨리 우리 교회에 와서 치료받으세요”라고 간청했고 어머니

는 올해 1월 1일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타국까지 믿음을 가지고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셨는지 어머니는 한국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난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어올랐던 발의 부기가 빠지고 잦았던 기침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의 기도를 몇 차례 받으신 뒤 복수도 거의 빠졌지요.

그 뒤 어머니는 매일 만민기도원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 받고 기도하며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셨습니다. 또한 당회장님의 자서전 『나의

삶 나의 신앙』과 대표적 설교집 『십자가의 도』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우쳐 나가셨지요. 이로 인해 기쁨과 감사함 속에 믿음이 성장하면서 결국 9월 초

병원 검사 결과, ‘정상’ 판정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복부 CT 사진(어머니 이수금 집사)



▲ 기도 받기 전 : 간 주변과 비장 주변에 간경화로 인한 복수(하얀별표)가 상당량 보임.



▲ 기도 받은 후 : 간경화로 인한 복수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음.

## “류머티즘성 관절염의 고통에서 해방돼 행복합니다!”

글로 브릿지 성도 (56세,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만민교회)

저는 2013년 5월부터 왼쪽 팔과 손에 류머티즘성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으로 팔과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특히 찬물에는 손을 담글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해 초, 가족과 함께 킨샤사만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로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직장에서 승진했고 가정에도 축복이 임했지요.

무엇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악을 벗어 버리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함을 깨닫고 간음과 거짓말했던 것을 눈물로 회

개해 믿음이 더해지는 체험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류머티즘성 관절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8월에 있을 만민하게수련회를 기도로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마침내 8월 5일 만민하게수련회 첫날, 저는 한국에서 열린 수련회를 GCN방송을 통해 참석했는데 마음 중심에서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뒤 믿음으로 환자기도를 받을 때 무언가 따뜻한 것이 제 왼쪽 어깨를 관통하는 느낌을 받았지요. 이때 왼쪽 팔 전체가 뜨거워졌는데 마치 제 팔에 불이 붙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통화자복을 하였고, 뜨거워진 점차 식어지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졌지요. 이후 통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왼팔을 천천히 움



직여 보았는데, 전혀 아프지 않고 아무런 이상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왼쪽 팔과 손을 찬물에 담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샤워나 빨래도 찬물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왼쪽 팔을 많이 사용해도 아무런 통증이 없고 손가락도 잘 움직여집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 되어 건강하게 살아가니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늘 함께하시고 제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저의 구원자요,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사천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향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사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18-5730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2213-207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셀대로 117번길 12 ☎031)635-9103, 010-4115-112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3430-3312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